



Cambridge IGCSE™

FIRST LANGUAGE KOREAN

0521/12

Paper 1 Reading

May/June 2021

INSERT

2 hours

INFORMATION

-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Do not write your answers** on the insert.

유의사항

-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 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 이 첨부 시험지 공간에 표시를 하거나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첨부 시험지에는 **채점될 최종 답안을 쓰지 마십시오.**



This document has **8** pages. Any blank pages are indicated.

Text A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 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A

다음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실린 <화랑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화랑이라는 말은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뜻인데 화랑도란 신라시대 화랑을 우두머리로 한 단체정신이 매우 강한 청소년 수련단체로서 교육적·군사적·사교단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인재를 배출해 신라의 삼국통일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계층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원시공동체사회에서는 촌락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 청소년조직과 같은 인위적인 공동체가 생겨 국가사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발전하게 되었다. 일정한 연령에 이른 마을의 남성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년이 될 여러 가지 경험을 쌓다가 성년식을 고비로 일단 끝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청소년조직은 결합의 원리상 성과 연령을 공통으로 하는 일종의 연령집단의 성격을 띤다. 5

화랑도가 국가에 의해 정식으로 제정된 것도 진흥왕 때(540~576)의 일이었다. 당시 신라 조정은 핵심이 되는 군대를 보충할 병력이 당장 필요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화랑도는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기관의 임무를 띠고 출발한 제도였으나, 법률로서 제정된 정식 국가기관은 아니었다. 10

화랑집단은 각기 화랑 한 명과 승려 약간 명, 그리고 화랑을 따르는 다수의 낭도로 구성되어 있다. 낭도의 수효는 일정하지 않으나 많을 때는 1천 명이 되기도 하였다. 화랑은 이 집단의 중심인물로서 용모가 단정하고 믿음직하며, 사교성이 풍부한 귀족 가운데서 낭도의 추천을 받아 뽑혔다. 화랑의 무리 내의 승려들은 노래 가사를 짓거나 화랑집단이 어떤 의식을 집행할 때 도와주는 등 주로 지적·정신적인 방면에서 화랑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학문적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 뽑혔다. 한편 낭도는 상류계층 출신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자제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본다. 화랑도는 이처럼 귀족에서부터 일반평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에 속하는, 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맺어지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화랑도는 혈연주의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혈연주의를 초월해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 결성된 단체라 할 수 있다. 15 20

화랑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단체생활을 한 듯하다. 신라사회에서는 보통 3년을 하나의 서약수련의무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랑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화랑은 대개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되어 있다. 화랑집단의 성원들은 이 기간 동안 명승지를 찾아다니면서 국토애를 기르는 한편 도의를 닦고 무술을 익혔다. 화랑도가 제정된 6세기 중엽부터 삼국통일을 이루는 7세기 중엽까지의 1세기 동안이 신라 역사상 국난기였으며, 이러한 시대에 숭상되는 도의는 바로 충과 신이었다. 이 외에 실제로 지리를 익힌다는 점도 있었다. 또한 화랑도의 수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래와 춤이었다. 본래 노래가 정신교육에, 특히 청소년의 의기를 북돋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5 30

이처럼 화랑도는 성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합되어 공동목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하는 단체였던 만큼 화랑도 성원간의 우정관계나 단체의식은 매우 강해 성원의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일종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화랑들의 전기를 보면 당시에 화랑뿐 아니라 낭도나 일반 병졸에 이르기까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무엇보다도 전사를 명예로 여기는 무사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무사도는 화랑도의 집단수련을 통해 키워진 것이었다. 35

화랑도는 불교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화랑은 석가모니 다음으로 부처가 될 보살로 여겨졌다. 그러나 화랑도가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랑도의 운동 자체를 불교주의 운동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화랑도조직 자체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왕권과 권력기구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40

화랑도는 삼국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진흥왕 때 제정되어 삼국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한 세기 동안에 활기를 띠었다. 화랑도는 이 시기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를 상대로 1백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전쟁상태에 있던 신라의 국가적 위기에 화랑도는 전사단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사태가 중대한 때에는 군부대에 들어가 작전에 동원되었으며, 수련기간이 끝난 뒤에는 국가의 정식 군인으로서 활동하였다. 화랑도의 무사도가 화랑집단은 물론이고 일반평민층에까지 널리 퍼져서 시대정신의 구현에 도움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45

화랑도조직은 매우 의협심이 강한 집단으로서 약한 자를 돕는 데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밤에 마을의 경비를 맡기도 하였다. 한편, 화랑도가 활동하던 시기는 신라 고유의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확산되어 가던 때였다. 화랑도는 이러한 신분계층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그것은 화랑도가 귀족, 일반평민 출신 등 여러 신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집단 자체는 어디까지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조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50

삼국통일을 달성하자 신라의 제1차 목표였던 군사적 과업은 일단 끝나게 되었다. 이에 전사단으로서의 화랑도의 존재 의의는 점차 줄어들었다. 더욱이 통일 후 1백 년 동안 안정기를 누리게 되면서 그 동안의 긴장된 생활에서 갑자기 해방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 기강이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화랑도의 수련도, 특히 국토순례 의미를 지녔던 명승지순례도 다만 즐기기 위한 놀이의 성격으로 점차 변해갔다. 더욱이, 9세기에 들어와 왕권이 약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귀족의 세력이 크게 떨치게 되었고, 이에 화랑도는 귀족들의 사병적인 성격을 띠는 집단으로 변해갔다. 국가권력의 쇠퇴와 더불어 화랑도는 국가의 권력기구를 지지, 옹호한다는 본래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청소년단체로 변하였다. 이처럼 신라 말기로 접어들수록 점차 변해가던 화랑도는 신라의 멸망과 함께 제도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55 60

Text B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 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Text B

다음은 <<재외동포신문>>에 실린 신성대의 칼럼 <신사도란 무엇인가? 서구 정신의 뿌리, 기사도>의 일부입니다.

11세기경 유럽 귀족들의 부는 토지에 집약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유산배분으로 인해 토지가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가문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귀족 집안에서는 이들 가운데 한 명만 결혼시키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머지 아들들은 합법적으로는 부인도 없고 재산과 마땅한 거처조차 없이 살아야 했다.

대부분의 결혼도 하지 못한 수많은 귀족남자들은 평생 동안 무리지어 모험을 찾아 다녀야 했는데, ‘모험’이란 말 자체도 이 무렵에 생겨났다고 한다. 당시의 모험이란 군사적, 파괴적 행위를 의미하였으며, 도처에서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였다. 5

물론 이런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기사계급과 군인패거리들이었다. 마침내 교회가 기사계급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나서게 된다. 병정들을 모아 놓고, 주교와 군주들은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하느님 앞에서 너희들의 영혼을 걸고 서약하라. 너희들은 서로 죽일 수는 있으나, 교회 주위에서는 싸움을 할 수 없다. 교회는 누구라도 원한다면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의 수난을 기리는 뜻에서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싸울 수 없다. 그리고 여인들, 특히 귀족계급의 여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인, 성직자, 수도승들을 해쳐서도 안 된다.” 이로써 지정된 장소에서 무장한 군인들끼리만 폭력행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은 일종의 전쟁규약이 마련된 셈이다. 10 15

기사란 중세 유럽의 상층사회에서 활동하던 기마무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사정신은 서구 상류사회의 문화정신이다. 귀족가문 출신의 자제가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7, 8세가 될 무렵, 출신에 따라 등급이 높은 영주의 집에 들어가 영주나 그 부인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 그러다가 12세쯤 되면 견습기사가 되어 주인을 따라 전장에 나가 방패잡이나 종자 역할을 하면서 전문적인 무예와 기사 훈련을 받는다. 21세가 되면 그 능력을 인정받아 기사작위를 받는다. 20

이 같은 기사제도에서 생겨난 기사문화는 확실히 폐쇄적인 상층사회의 귀족문화였다. 그것의 문화정신 역시 귀족문화정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사제도 가운데 기사와 평민은 왕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것은 신분을 중히 여기고, 자기 수양에 힘쓰며, 맹세를 지키고, 법규를 존중하는 사회등급의 문화정신이였다. 기사신분을 갖게 되는 것은 무사가 상류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표시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습되었다. 25

기사제도가 발전하면서 그리스도교 교도로서 이상적인 기사상이 널리 퍼졌다. 교회를 존중하고, 영주와 군대의 상관에게 충성하며, 자기 명예를 지키는 이가 기사의 이상형이었다. 이런 이상에 가까운 기사들이 나타난 것은 11세기 말부터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기사들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대의 아래 모였던 십자군전쟁 때였다. 특히 예수의 무덤에서 작위수여식을 치른 기사를 ‘성묘기사’라 불렀다. 십자군전쟁 때 최초의 기사단들, 즉 예루살렘의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이 생겼다. 이후 여러 가지 목적과 형태를 띤 기사단들이 생겨났다. 30

그들은 교회를 존경하고 영주에 충성하며, 용맹함과 명예심 그리고 예의바름을 기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십자군 운동이 시들해지고 백년전쟁을 치르면서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들이 늘어나면서 기사들은 차츰 줄어들었다. 14-15세기에 걸쳐 대포의 발달과 중앙집권제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기사제도가 완전히 무너졌다. 35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군사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기사작위는 국왕이 마음 내킬 때 수여하는 명예지위로 전락하였다. 군주의 측근인 고위 귀족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명예 작위를 갖는 것이 유행하였다. 중세 말엽, 종교와 관계없는 세속적인 기사작위들도 많이 생겨나 귀족이나 정부 관리, 각종 직업과 예술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명예로 수여하게 되었다.

서양 기사의 인격정신, 즉 기사정신은 의무를 가장 우위에 두는 가치관념이었다. 기사의 모든 것은 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규범화하였다. 그것은 법률과 유사한 형식으로 기사와 각급 봉건통치자와의 관계를 사회화시켰으며, 종교적 신성함을 부여하였다. 기사와 영주의 관계는 ‘선서’나 ‘재산 목록’ 등의 서류를 통해 확정되고, 또 합법화되었다. 이들 문서는 기사와 영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다시 교환하였다. 그리고 기사에게는 영주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다. 기사들의 문제는 대개 기사법정을 설치해 즉결 심판하였다. 40 45

기사는 또 교회에서 보호하는 선교사, 참배자, 과부와 고아를 보호한다는 선서를 하여야 했다. 이리하여 기사는 심리적으로 주종관계를 초월하는 사회적 의무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인격평등의 관념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상징하는 종교정신의 행동준칙이었다. 비록 자신의 주인을 위해 봉사하였지만, 정의를 지키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사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 같은 추상적이며 초월적인 정의, 진리에 대한 충성과 의무감은 후대 유럽정신의 이성주의와 인도주의의 기원이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기사 정신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양의 충성과 확연히 구별된다. 50

기사도는 개인의 명예감이 기초가 된 인격 정신인 동시에 기사 준칙을 자각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행동방식을 규범화하였다. 그것은 기사에게 직무에 충실하고, 용감하게 전쟁에 참가하며, 허락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약자를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그들의 명예가 모욕이나 의심을 받게 되면 결투의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궁중예절을 앞다투어 배워 고상한 기품을 소중히 하였다. 기사정신은 상층의 귀족문화정신으로 개인 신분의 우월감이 기초가 되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덕과 인격정신이다. 55

기사도 정신, 그리고 신사도. 현대 유럽인들은 이를 통해 개인의 신분과 명예를 중시하여 기품과 예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거지에 대해 신경을 쓰며, 정신적인 이상을 숭상하고, 여자를 존중하는 낭만적인 기질을 동경하도록 했다. 또한 공개경쟁, 공평경쟁이라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형성케 했으며, 약자 돕기를 좋아하고, 이상과 명예를 위해 희생하는 호쾌한 무인의 기질과 품격을 물려받은 것이다. 오늘날 스포츠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정신인 스포츠맨십 역시 이 기사도 정신에 다름 아닌 것이다. 60

BLANK PAGE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ambridgeinternational.org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tself is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